

계엄 이후 ‘어대명’ 확고해져…2金, 끝까지 완주 다짐

민주당 충청·영남 경선 결과

호남 경선서 사실상 후보 결정

이재명 캠프 호남서 지지세 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잇따라 90%를 넘나드는 득표율로 압승했다.

두 권역에서 연이어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어대명’ (어차고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공식을 재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역 권리당원이 전국 권리당원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호남권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이끌면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를 굳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UECO)에서 진행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결과 이 후보가 90.81%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영남 지역 경선에서 유효투표수는 7만3255표 (권리당원 7만 1065표, 전국대의원 2190표)였다.

이중 이 후보는 6만 65267표 (90.81%)를 얻었다.

전날 충청권 결과까지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는 89.56%로 1위를 굳건히 사수했다.

2곳의 지역 경선 결과에 대한 누적 집계를 보면 이 후보가 13만 7985표 중 12만 3853표 (권리당원 12만 685표, 전국대의원 2898)를 받았다. 2위와 3

위는 각각 김동연 (5.27%) 후보와 김경수 (5.17%) 후보로 1% 차이다.

전날 이 후보는 충청 지역 경선에서 유효투표수는 6만4730표 (권리당원 6만 3460표, 전국대의원 1270표) 중 88.15% (5만 7057표)를 득표했지만 영남권에서 차이를 더 벌였다.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동연 (7.54%)·김경수 (4.31%) 후보 순으로 2·3위가 결정됐지만, 이날 영남권에서는 김경수 (5.93%)·김동연 후보 (3.26%)로 뒤집혔다.

이 후보는 큰 표차로 ‘대세론’을 굳히고 있지만, 호남권과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 승리의 소감을 밝히기 보다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압도적인 표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국민 의견도 남아있어서 결과를 숙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 제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저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충청권에서도 “당원 동지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며 “국민과 당원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시는 지 짐작한 바는 없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권 경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계의 분석이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자 본고장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가 호남권에서 큰 승리를 얻는다면 대권후보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미 호남권에서도 이 후보의 대세론은 꺾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후보가 3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간 당 대표직을 역임하며 당내 장악력과 지지도가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캠프도 20일부터 호남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지 세력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를 제외한 양 김 후보는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이 후보자와의 단일화 보다는

향후 당내에서의 입지와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완주’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남은 경선에서도 곳곳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제가 가장 적임이라는 생각에는 추후도 흔들림이 없다. 끝까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번 경선은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 목표로 해야만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며 모든 민주 세력의 힘을 모아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 대개혁을 이룰 연대를 만들 수 있다”며 “남은 경선 기간 더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완주의 의지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해야”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국민의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강조했다.

또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을 높이는 게 선결돼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현 ‘7대 3’에서 ‘6대 4’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광주에 제2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준표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이전 해결책은.

▲지방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등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민간 갈등,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안보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분권은 재정과 권한이 이양될 때 현실화된다. 대표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방재정 비율도 중앙 6 지방 4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대 관문공항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은.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5대 신공항을 거점으로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광주에 제2의 대통령집무실 설치

국세·지방세 비중 7대 3→6대 4

등 첨단산업시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 나를 하늘길 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는.

▲정권 교체에 찬성을 한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재명의 나라’로 하느냐 ‘홍준표의 나라’로 하느냐.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6공화국이 40년째 지속됐다. 이제 한계에 왔다. 이제 7공화국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거기에 들어가는 단초를 홍준표가 여느냐 이재명이 여느냐를 국민들이 선택을 묻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이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과 빅텐트에 대한 생각은.

▲흥행하려고 경선하는 건 아니다. 후보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흥행이 안되면 어쩌나, 본선이 흥



행되게 하면 된다. 지금 빅텐트 얘기하는 건 결례이다. 이준석 대표 열심히 하는 데 ‘김빠는’ 소리다. 다른 사람들도 제 3지대 만들라고 하는데 결례이다. 후보가 된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 분들에 대한 예의이다.

-본인과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온갖 증빙지 저지르

고 한 건 왜 안 묻냐. 나한테는 여론조사 시비 하나로 출마 자격 있냐고 묻고, 그건 부당하다. 같이 후보하는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냐고, 출마해도 되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내란죄는 안 될 거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공수처나 검찰 수사 기록은 무효다. 법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성립 어렵고, 직권남용으로 갈 거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합의를 이끌지 못했는데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내내 ‘여소야대’였다. 정치력의 문제다. DJ가 ‘국회 땀에 못해 먹겠다’고 한 일이 있다. 그니까 그건 통치력의 문제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양원제를 한다면 세종시로 하원을 옮기고 상원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의도에 두는 방식이 있다. 또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자. (청와대) 보안구역 설정하면 (사용이) 된다. 예전에는 너무 넓었다 그걸 좀 좁혀서 하면 된다. 또 필요하다면 광주, 대구, 부산에 제2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